

지구촌대학생연합 워크숍 “8가지 약속, 함께하는 MDG”

MDG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추진방안*

I. 대내외 ODA 환경의 변화

1. MDG 선언을 통한 빈곤 완화 달성노력 가속화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공여국들은 빈곤완화 등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2000년 UN총회에서 “천년개발 목표(MDG)”를 선언
- 개별국가들은 MDG를 국가개발계획에 통합하여 부처별 예산배정과 우선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70개국 이상의 개도국에서 빈곤감소 전략을 수립, 실천하고 있음

2. ODA규모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중

- 전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한 ODA 재원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이 ODA 논의의 핵심과제로 등장
- 2005년 9월, 제60차 UN 정상회의에서 MDG를 포함한 국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별 전략 채택 및 실행 결의

3. MDG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 우리 정부는 대외원조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5년도에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분권화 된 원조체

* 본고는 2007. 6. 25 지구촌 대학생 캠프에서 KOICA 장현식 실장이 기초강연으로 강의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계 보완 및 부처간 협의기능 강화 노력

- ODA 규모 확대 노력 및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수원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맞춤형 원조를 위한 국가 원조전략(CP : Country Programing) 수립 추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2년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 표1 참조

II. 한국 ODA 개괄

1. 연도별 공여 실적

-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추이
 -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결과, 1995년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06년도에는 4.46억 달러를 기록,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나타냄
 - 무상원조의 경우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0년도 부터

2. 중점 추진방향

- 개도국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가 가능한 사업 지원 및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수원국의 자립능력 강화 집중지원
- MDG 등 국제사회 공동목표 지원강화
- 국제적 재난복구 및 재건지원 강화
- 우리나라 위상제고 및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표 1〉 최근 6년간의 공여 실적

구분	'01	'02	'03	'04	'05	'06
ODA총계	264,65	278,78	365,91	423,32	752,32	446,67
양자간 원조	171,54	206,76	245,17	330,76	463,30	365,61
- 무상원조	52,97	66,70	145,46	212,09	318,00	248,50
- 유상원조(EDCF)	118,57	140,06	99,71	118,68	145,30	117,11
다자간 원조	93,11	72,02	120,74	92,56	289,01	81,06
ODA/GNI비율(%)	0,06	0,06	0,06	0,06	0,10	0,05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비율(%)	30,90	32,30	59,30	64,10	68,60	68,00

Ⅲ. 대외무상원조 집행전략

〈표 2〉 KOICA의 7대 사업 분야

분야	MDG 기여	내용 및 사례
교육훈련	Goal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Goal 8/Target 16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 기초교육 확대, 직업훈련강화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인적 자원개발경험 활용 *스리랑카 Zahira College 초등학교 신축사업('05-' 06/800천불)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2-' 05/2,000천불)
보건의료	Goal 4(아동사망률 감소) Goal 5(모성보건 증진) Goal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보건의료 혜택 확대, 기초위생수준 향상 - 서남아 및 아프리카 최빈국 지원 강화 *몽골 식수개발사업('05-' 06/500천불)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현대화사업 ('05-' 06/2,400천불)
행정제도	Goal 8/Target 12 (무역 및 금융시스템 발전, Good Governance)	- 개도국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캄보디아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사업 ('04-' 05/870천불)
정보통신	Goal 8/Target 18 (정보통신관련 신기술의 혜택 이용 가능)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 주요 정부부처 정보화 위주 지원 *엘살바도르 소비자보호청 IT시스템 구축 사업('05-' 06/500천불) *한-베트남 친선 IT대학 설립사업 ('04-' 07/10,000천불)
산업에너지	Goal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Goal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Goal 4(아동사망률 감소) Goal 5(모성보건 증진)	- 사업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지원 *아세안 5개국 철도연결 타당성조사 ('04-' 07/1,200천불)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건설사업 ('05-' 06/1,600천불)
농촌개발	Goal 1/Target 1(절대빈곤 인구 반감) Goal 1/target 2(기아인구비율 반감) Goal 7/Target 11(빈민가 거주자의 생활여건 개선)	- 농업생산성 증진, 농업인프라 확대 *필리핀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 ('05-' 06/2,300천불) *ESCAP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02-' 05/615,8천불)
환경 및 기타	Goal 7/Target 9(지속가능개발원칙) Goal 7/Target 10(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환경)	- 자연자원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보 존 등 *중국 북경지구 산림종합경영 시범사업('05-' 07/1,000천불)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04-' 05/300천불)

〈표 3〉 연수사업 실적 (1991~2006)〉

구분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기타
과정	143과정	92과정	576과정	181과정	145과정	201과정	144과정
인원	2,540명	1,520명	9,867명	3,041명	2,360명	3,079명	2,320명
비중(%)	10.3	6.1	39.9	12.3	9.5	12.5	9.4

1. KOICA의 사업분야

■ 7개 중점분야 중심의 지원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7개 분야 지원

※ 표2. 참조

2. KOICA의 사업수단

■ 국내초청 연수사업

- 개도국의 인력자원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한국에 초청

- 1991~2006년까지 총 1,482과정 개설, 24,727명이 참가

※ 표3. 참조

■ 프로그램 원조

- 인프라 건축,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협력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며 수원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
- 2006년도에 재난구호를 포함, 총 603억원 규모 집행

■ 개발조사

-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

축 타당성조사 및 설계 및 EDCF와 연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기회 제공

- 1991~2006년도 까지 총 474억원 지원

■ 해외봉사단 파견

- KOICA가 추진중인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협력사업으로 교육문화 분야(26개국-한국어, 유아교육, 시장마케팅 등)와 농림수산 분야(15개국-과수재배, 농촌개발, 수의사 등), 보건위생(9개국-간호, 물리치료, 약사 등), 기타(기계, 자동차정비, 태권도)의 분야에서 활동
- 1990~2006년도 까지 총 3,776명을 41개국에 파견

■ 전문인력 파견

-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하거나, 개도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개도국 현장에 파견
- 전문인력은 기술이전 및 정책자문 형태의 일반 전문가와 의료단, 태권도 사범 파견의 3가지 형태로 구분
- 2006년도에 전문가는 19개국 57명, 의료단은 16개국 16명, 태권도 사범은 19개국 19명 파견

■ NGO지원

- 국민 참여형 협력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부차원 협력사업의 보완 및 원조의 시너지 효과

과 제고

- 1995년도에 지원액이 4.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도에 52원으로 증액되어 199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됨
- 1995~2006도 까지 총 46국 55개 단체 345건의 사업 지원

■ 재난복구

- 재해 또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에게 의료인력 파견, 긴급구호물품 등의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인도적 긴급구호와 난민들의 정착 조성을 위한 장기복구 원조인 장기적재건활동으로 구분
- 2004년도 남아시아 쓰나미 및 2005년도 파키스탄 대지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긴급구호활동 시작

IV.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

1. ODA 규모의 증액과 질적 개선

■ ODA 규모 확대

- 절대적인 원조규모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2006년도 ODA/GNI 비율은 0.05%로 OECD/DAC 회원국 평균 0.30%의 1/6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GNI 기준(GNI는 7,646억 달러) 세계 11위 라는 경제대국의 위

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조 규모는 GNI의 0.05%, 1인당 ODA는 10달러 수준에 그쳐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와 경쟁구도에 있는 일본과 비교시에도 우리의 경제력은 일본의 1/2 수준이나 원조규모는 1/5 정도에 불과함

- 현재 한국 정부는 ODA/GNI 비율을 2009년까지 0.1%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DAC 가입 이후 빠른 기간(3~4년)내에 DAC회원국의 ODA/GNI 평균(2002년 0.23%) 수준에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ODA 규모 확대 계획임

■ 무상원조 비율 증대

- OECD는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상원조 축소 및 최빈국에 대한 무상 중심의 원조를 권고하였으며, 국제사회 또한 무상원조 중심의 ODA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ODA 중 무상원조 부분은 KOICA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아프간과 이라크 재건 지원 이후에는 무상원조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 ODA중 68%를(2006년 기준) 기록한 바 있으나, 이는 OECD/DAC 회원국의 평균이 99%라는 세계적 원조 추세 및 ODA 근본 취지, 사업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ODA 무상원조사업 실시부처 일원화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대외무상원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었으나,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협력단 설립취지와는 달리 개별적 입법 또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개별입법 사례**

-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부처별 주요 무상원조사업 추진내역**

- 정보통신부 : IT봉사단(연간 300여명), IT연수생초청(연간 2~3백여명)개도국 IT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 과학기술부 : 연간 50여명 수준의 과학기술자 교류
- 보건복지부 : 한방의료학 교류, 보건의료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국인 유학생초청 등(연간 약 60여명)
- 여러 부처의 중복 실시로 인한 원조의 효율성 및 일관성 초래, 따라서 이를 KOICA로 일원화하여 무상원조의 통합실시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함

2. MDG 실천 위한 원조기본지침 수립

■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

- 우리나라 원조 사업의 이념, 목표, 중·장기 원조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원조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일관성

확보

- MDG 달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기본목표와 전략 등을 포함하는 원조 전략틀(Strategic Framework) 수립, 반영

3. 사업평가 시스템 강화

■ 평가제도의 선진화와 성과중심의 사업추진도모

-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중간, 종료평가 실시
- 국별, 분야별, 이슈별 평가 및 우수 사례 피드백 강화

■ 평가의 신뢰성 확보

- 평가수행 시 NGO 등 민간참여 강화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 평가결과 활용 시스템 구축

- 평가결과를 우량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피드백
-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한 평가결과의 정보화 및 체계화

4. 국민 참여형 원조기반의 구축

■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 국민 개개인은 물론 민간기업, NGO, 대학 등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효과
적인 ODA 사업수행 도모

■ NGO 참여강화

- NGO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장려
- 정책 대화 등을 통한 GO와 NGO간의
Network 강화

5.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 발전

■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원조정책 및 원조기법

연구

-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화가
된 우리만의 특화성을 지닌 원조 모델을 개발
하고 발전시켜 빈곤 퇴치국(Poverty Cutter)
으로서의 국제적 명성 획득
- OECD 공여국 중 유일하게 빈곤을 성공적으
로 극복한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발전
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생력 육성에 중점